



大韓齒科醫師協會 第40次 定期代議員總會，釜山서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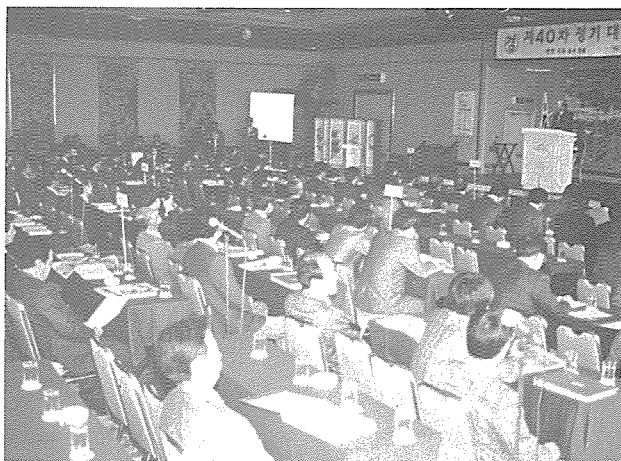
- 의료기술법 改正 反對결의문 채택
- 常勤保險委員制導入 결의
- 國民口腔保健宣言文 發表
- 障礙者 구강보건진료원 設立
- 치과의사 年金制度 실행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윤홍렬)는 지난 4월20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서 제 4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李鍾律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丁達秀의장과 尹興烈치협회장은 각각 인사말을 통해 『일만명의 회원의 관심어린 눈길을 의식하고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의를 표명해 줄것』과 『우리들만을 위한 회무가 아니라 앞으로 회원이 될 예비회원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회무가 될수 있도록, 중지와 지해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된 시상과 상패수여 순서에서는 明魯哲 前치협공보이사가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회비를 완납한 대전, 충북, 경남, 제주지부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 지부의 회무발전에 공이 큰 회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어 속개된 총회에서는 부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을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애자 구강보건진료센터건립 및 멘탈실 제작, 치과 의사상근보험위원회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91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예산안심의에서는 대의원들이 회비13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9억 7천여만원 규모의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 회비를 12만원과 11만원으로 하는 두가지 안이 표결에 부쳐져 82대 47로 회비 12만원안이 통과됐으며 예산삭감에 따른 예산재조정은 집행부에 일임하는등 모두 2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p.296에 계속>



▲ 대의원총회 장면(단상에 정달수 의장이 보인다).



▲ 개회사를 하는 윤홍렬치협회장